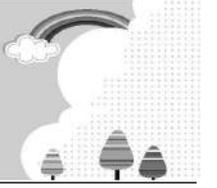




드림레터 수기전 당선작



김○범 선생님께

김○겸 / 황○중○초등학교

안녕하세요? 저 ○겸이에요.

제가 오늘은 선생님께 할 말이 있어서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께서 항상 차분하고 웃으시면서 우리를 이해해주시는 모습이 마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은 너무 훌륭하시고 최고로 멋진 선생님이세요.

전 선생님과 은행놀이와 운동회, 학예회, 공부, 시험 등등을 함께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경험한 것 같아요. 특히 선생님은 일기장을 봐주실 때 댓글도 재미있게 달아주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일기를 쓰고는 즐거운 마음으로 선생님께서 무슨 말을 적어 놓으셨을까 기대하며 열어보면 단순히 잘했어요, 점 등 이런 것들만 있고 선생님처럼 재미있는 댓글은 안 달아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요. 전 선생님처럼 현명하고 착하고 인심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은 혹시 어렸을 때부터 꿈이 선생님이 되는 것이셨나요?

저는 처음부터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선생님을 만나고부터 더욱 그 꿈이 간절해졌어요.

선생님은 학교생활이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선생님 덕분에 매우 즐거웠어요.

전 선생님이란 꿈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선생님이란 장래 희망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관찰 등등을 해요. 그래도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은 선생님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선생님을 닮고 싶어서 선생님이란 장래 희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일 고민하지만 해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너무 슬프기도 해요.

하지만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꼭 본받아서, 현명하고 착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멋진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 다음에 멋진 선생님이로 찾아뵙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드림레터 수기전 당선작



새로운 비상을 꿈꾸는 딸에게

문○영

엄마의 자랑이었던 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소극적으로 변하고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꿈이 없다고 말했을 때 엄마는 정말 당황스러웠단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지역을 함께 여행했고, 학년에 맞는 계획을 세워 박물관, 미술관 등 다채롭고 알찬 체험학습도 나를 열심히 지원했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꿈꾸고 꿈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한 네게서 꿈이 없다는 말을 들을 줄이야.

처음엔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이 느껴지고 어찌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더구나. 애꿎은 내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네 또래의 다른 친구들은 일찌감치 진로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차근차근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딸만 너무 늦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었지.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아빠와 진지하게 의논을 하기도 했었던단다.

돌이켜보니 사랑하는 너를 위해 체험학습을 계획하고 과학관과 박물관, 미술관 수업을 신청했는데 정작 그 속에 너의 관심과 의견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이런 것이 너의 인생에, 진로에 도움이 되겠지 하는 엄마의 시각, 엄마의 주도로 이끌어 온 너의 삶에 네 자신의 흥미와 관심을 알아보고 네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사랑하는 딸아, 소나무와 잣나무 잎이 늦게 시든다는 사실은 날씨가 차가워진 뒤에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지?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의 진가는 힘든 시련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나타난다는 말일 거야.

엄마는 우리 딸 ○현이가 지금은 미래가 캄캄하게 보이고 꿈이 없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 있지만 이 상황을 잘 이겨 내면 더욱 더 발전되고 성숙한 네가 될 거라고 믿는단다. 조금하게 '꿈'을 억지로 생각해내서 정하려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고 보고, 읽고 느끼면서 그중에서 자신에게 즐겁고 의미 있는 것을 찾아 집중한다면 스스로 진로를 찾아나가는 큰 여정에 들어서게 될 거라 생각해.

하나의 작은 씨앗이 꽃과 열매를 피우기까지 따사로운 햇빛과 넉넉하게 품어주는 흙과 시원한 물, 바람 등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엄마는 네가 스스로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하며 성장해 나갈 때 늘 옆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격려하는 역할을 감당하려고 한단다. 엄마의 생각과 주관대로 엄마보다 더 큰 너를 재단하고 묶어두려고 하기보다는 네 스스로 마음껏 자유롭게 세상을 탐색하고 그 안에서 네 자신을 발견하며 가치 있는 것을 찾아 새롭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며 너를 기다려주는 것이 엄마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

사랑하는 딸아, 10대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 사춘기를 겪는 것처럼 진로에 있어서도 사춘기 단계에 있는 것 같구나.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세상을 탐색하고 진로를 고민하며 답답해하는 진로 사춘기 말이야. 번데기 과정을 거쳐 화려하게 변신하는 나비처럼, 답답하고 고민 가득한 진로 사춘기 과정을 거치고 새롭고 아름다운 비상을 꿈꾸는 우리 ○현이의 미래를 엄마가 응원하마. 사랑한다, 우리 딸!!

※ 위의 글은 임의로 요약·편집한 것으로, 전체 글은 커리어넷의 진로교육자료 게시판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